

## 오륙도 칼럼



동길산

부산은 등대의 도시다. 6대 대도시 가운데 등대가 가장 많다. 바다를 끼지 않은 서울이나 대구, 광주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울산과 인천에 견줘서도 월등히 많다. 2013년 1월 기준 등대수가 울산 49, 인천 35인 반면 부산은 무려 65개나 된다. 2013년 6월 영두산타워가 '관광 및 항행 원조용 등대'로 고시되고 기장 공수마을에 등대가 새로 들어서

## 1905년 부산 밤바다 처음 밝힌 감만동 제퇴등대

〈鰐瀬 : 오리여울이란 뜻〉

는 등 해양수도답게 부산의 등대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림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는 어딜까. 공식적으로 태종대에 있는 영도등대다. 1906년 12월 점 등했으니 100년을 훌쩍 넘긴 등대다.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부산시가 작년 폐년 부산 기네스 관련 책자에도 영도등대를 가장 오랜 등대로 꼽고 있다. 하지만 영도 바다 한복판 등대보다 한 해 이르 게 건립된 등대가 있다. 그게 남구 감만동 제퇴등대다.

## 바다 한복판 수증암초에 세워

제퇴등대가 처음 점등한 건 1905년 6월. 점등 연도뿐만 따지면 제퇴등대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임이 자명하다. 그런데 왜 영도

등대에 최고(最古) 자리를 내줬을까.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제퇴등대는 지금은 육지 끝단 등대지만 애초엔 바다 한가운데 수증암초에 세워진 등표였다. 등대와 등표는 생긴 건 비슷해도 기능은 엄연히 다르다. 등표였던 게 방파제가 조성되면서 1998년 부산항북방파제등대가 되었다. 그러다 신감만부두 조성으로 육지와 이어진 뒤 2001년 등대 인성 95년을 마감했다.

제퇴(鰐瀬)는 오리여울이란 뜻이다. 제퇴 제는 사다새 제. 인터넷에서 사다새를 검색하면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달린 물새가 나온다. 오리처럼 생겼다. 오리처럼 생긴 수증암초에 세운 등대라 해서 제퇴등대란 이름을 얻었다. 백 년도 더 전에 여기에 등대를 세운 뜻은 여기가 부산항 들목이었기 때문

## 부산항 들목 지진 터줏대감

제퇴등대를 지나면 신선대가 나타나고 오륙도가 나타난다. 제퇴등대는 등대였음을 회상하는 등대지만 기상만고는 늠름하다. 얼핏 보면 흰 수염 늘어뜨린 부산바다 터

주대감 같고 칼자루는 놓았지만 눈매 뿌리뿌리한 부산 바다의 파수꾼 같다.

필자는 작년 1월부터 지역 일간지에 부산 등대를 연재했다. 7개월 동안 연재한 등대는 모두 31군데. 등대가 하나뿐인 데도 있지만 둘, 심지어는 셋 되는 데도 있어 부산 등대는 거의 소개했지 싶다. 연재 첫 등대와 마지막 등대는 모두 남구에 소재한 등대였다. 오륙도등대를 첫 등대로 한 건 거기가 부산 관문이자 부산 상징이기 때문이었

고 제퇴등대가 마지막이 된 건 어찌됐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이기 때문이었다.

가장 오래된 등대를 가장 뒤에 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무어랄까, 처음에서 끝을 보고 끝에서 처음을 보려는 마음이 그 하나였고

처음과 끝은 별개가 아니고 이어진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그건 곧 처음 먹은 마음, 초심을 잃지 말자는 나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는 건 얼마나 난망한가. 얼마나 지극한가. 내가 남을 대하는 일도 그렇고 내가 나를 대하는 일도 그렇다. 남에게 나는 한결같았는가. 나에게 나는 한결같았는가.

등대의 덕목은 한결같다는 것. 언제나 한 자리, 언제나 한 모습이다. 사람 사이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주 오래 헤어져 있어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한결같으면 좀 좋을까. 남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마음이 힘든 날, 등대를 찾으면 위안이 된다. 더구나 제퇴등대는 흰 수염 늘어뜨린 할아버지 등대. 깊은 연륜으로 힘든 마음을 다독여 준다. 할아버지 흰 수염을 갖고 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진다.

시인

## 신선대

&lt;217&gt;

채규종



## 선웅의 1000자 지혜

117

## 술잔 속의 뱀

상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혼자만 추측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을 더러 본다. 별 것 아닌 것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한다든지 심지어 피해망상에 시달린다 병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진(眞)나라에 악광(樂廣)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남(河南)의 태수로 부임하여 평소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이튿날 그 친구가 갑자기 식음을



않았다. '혹시 저 활의 그림자가 술잔에 비친 게 아닐까?' 악광은 술잔에 술을 따랐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생각이 맞았다. 술잔에 뱀이 일렁이고 있었다. 악광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친구를 데리고 왔다. "내가 자네 병을 책임지고 고쳐줄테니 걱정말고 술부터 한잔하세요!" 친구는 안 마시겠다고 고개를 내저었지만 평소 허튼 소리를 하는 악광이 아니라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 술잔에 역시 뱀이 보였다. 친구가 섬뜩 놀라는 것을 본 악광이 벽에 걸린 활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네 술잔 속의 뱀은 뱀이 아니라 저 활의 그림자야. 잘 봐!" 악광이 활을 내린 뒤 술잔을 보니 정말 뱀이 보이진 않았다. 그 순간 친구의 병은 씻은 듯 나았다. 병도 마음이 만들고 행복도 마음이 만드는 것처럼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조직의 리더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조직원에게도 그런 생각을 갖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 부산남구신문 통해 많은 것 배워

부산남구신문을 읽다 남구에 대해 그 동안 몰랐던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1월호 기사 중 '남구를 빛낸 문화인' 기사를 통해서 작가 이중섭이 '문헌동 풍경'이라는 작품을 남길 정도로 부산 남구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김정희의 스케치로 읽는 풍경'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80년 대연동사거리의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말갈구지까지 다녔다고 하니, 은근히 웃음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사는 남구의 미처 몰랐던 역사의 한 장면을 보게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이우화(대연5동)

## '재활용 은행' 만들어 봤으면

졸업식이 끝난 요즘은 이미 사용했던 교과서와 참고서, 교복 등을 물려주고 물려받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일

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 깨끗이 사용해서 책이나 다름 없으며 교복도 조금만 손질하면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학생 교복은 새로 사면 25만원은 족히 들어가 가게에 적응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아나바다 계시판을 통해 이것들을 주고 받는다면 물자절약과 가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베품시장을 열거나 교복 및 교과서 등을 서로 주고받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재활용 은행을 개설해 시행해 보는 것도 관심을 갖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렬(남천동)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못골 상당 인근에 길고양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밤이면 지붕 위로 올라가 밤새 울어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고 그늘진 곳의 길고양이 사체로 인해 집 안에 구더기가 들어와 냄새를 당한 일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광철(대연5동)

## 나의 생각



지난 2월 2일 대연동 용소마을 썬지공원 보호수 아래에서 열린 용소당제.

## ■용소마을 당산제와 보호수

지난 2월 2일(음력 1월3일) 용소마을 썬지공원 개원과 더불어 당산제를 올렸다. 공원 가운데는 주민 휴식공간인 용소정이 세워졌다.

부산 교통방송국 옆 카센터 밑 집지역 뒤편 피닉스아파트와 신우아파트 사이에는 지난 1980년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173년 된 큰 해송(높이 15m) 한 그루가 당당하게 서 있다. 지금도 용소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장사소나무'라고 부른다.

용소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당곡마을(사당에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당곡이라고 함)의 뒷산(지금의 장조아파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당에 매년 제사를 지내왔다. 마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먼저 이른 새벽에 큰새미(큰 샘, 옛 대연3동주민센터 자리)에 있었던 우물)의 우물 물을 모두 퍼내고 우물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후 금줄을 치고, 이어 새장터의 장사 소나무로 가서 원새끼를 꼬아 소나무에 금줄을 치고 액막이로 붉은 황토 흙을

뿌렸다. 그리고 당곡마을의 사당으로 가서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이렇게 제사를 모신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가 80년대 개발 바람이 불어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레 당집은 황폐해 되었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이 장사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고, 용소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곳 보호수에서 용소마을의 당산제를 모시기 되었다. 당산제를 모시는 제주는 선달(生)금복(福)데: 좋은 복있는 날의 운수)을 보고 가장 깨끗한 사람을 지정하였다. 제주가 되면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샅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다녀야 했으며,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입에 형광을 두르고 다녔고 제수거리를 마련할 때에는 물건 값을 깎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주택들에 둘러싸여 거의 방치되다시피 세월을 버텨온 보호수는 지난해 남구청이 부지를 매입해 소나무 주변으로 공원을 꾸미고 용소마을을 설치하면서 마을주민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용소정 현판을 제자해 준 의정전수소 선생께 이 글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영백(향토사 연구위원)

## 눈 뜨고 당했다, 보이스피싱



그날은 금요일 오후 3시 30분경이었다. '저녁에 동생에게서 전화가 오셨지'라고 기다렸는데 전화는 오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마침내 연결이 되었다. '어제 무슨 일 있었나? 누나 계좌번호 불러 줄 테니까 거기로 돈 부쳐 줘.' "무슨 돈?" "어제 니가 카톡으로 급하게 사정이 생겼다고 친구 강성우 계좌로 돈 좀 보내 달라고 200만원 보냈잖아. 전화가 안돼 문자로만 주고 받았잖아." "그게 무슨 말이고? 내가 누나한테 문자했다고?"

##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일괄 응하지 말 것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사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전자금출사기 예방서비스 활용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 파밍 예방법

△경찰청 사이트에서 '파밍캠페인'을 다운 받아 자신의 컴퓨터가 가짜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로 체크 △V3LITE 길은 무료백신 받아 바이러스 제거 △파밍에 걸렸다면 컴퓨터에 있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기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PC 저장 금지

## 산타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lt;2014. 3.&gt;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 락 처
대연동	대산산악회	9(일)	통영 비지도	010-9979-0702
	대오산악회	9(일)	변산반도	010-2559-2086
	청암산악회	12(수)	통영 한산도 제승당	010-6778-3192
	안현산악회	19(수)	산행 고동제 돌레길	010-4655-4370
	용산산악회	23(일)	안동 천지간산	010-3586-6161
용호동	용호산악회	23(일)	영동 월영봉	010-2593-0361
	제일산악회	2(일)	보성 제석산	011-594-4192
	여명산악회	2(일)	고성 벽방산	010-3554-4392
	화경산악회	2(일)	진주 월아산 시산제	010-3575-3448
	용산산악회	9(일)	삼주 노을산	011-488-3307
용당동	금강산악회	2(일)	통영 비지도	010-3865-9051
	가산산악회	9(일)	영천 보현산	010-6266-8525
	부산산악회	2(일)	청도 화악산 시산제	011-576-2729
	청산산악회	2(일)	청도 화악산	010-8008-2087
	하마음산악회	9(일)	광양 백계사	010-9324-3424
용당동	하마음산악회	9(일)	경북 영주 소백산	010-7650-1984
	산사량산악회	18(화)	고미 금오산	010-8933-3208
	문현산악회	23(일)	구미 거금도	016-564-8882
	용마산악회	9(일)	경남 사량도	010-4433-8809
	녹색산악회	23(일)	고흥 팔영산	010-3595-7692
감만동	글로벌산악회	16(일)	통영 미륵도 달아길	010-8287-1192
	솔거문산악회	23(일)	고흥 거문도 적대봉	010-2397-1133
	무남산악회	16(일)	고흥 불영산	010-7520-6666
	우암산악회	2(일)	함천 가마산	010-3557-2847
	우암산악회	23(일)	원주 줄남산 시산제	010-6578-0488
문현동	문사산악회	9(일)	사량도 옥녀봉	019-558-2828
	문현산악회	2(일)	거제 사방산	011-9544-3434
	문현2인악회	9(일)	울진 웅불산	010-3178-3065
	문현산악회	16(일)	구미 금오산	010-6706-1255
	원부리산악회	16(일)	진안 마이산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고 혜택받으세요

일주일에 하루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혜택: 자동차세 10%감감(연납시 총 19%할인효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감감, 교통유발부담금 30%감감,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문의처: 남구청 교통행정과(607-4554), 동 주민센터